



회상

자원봉사자와 어르신들의 인터뷰

주제:

**장로 및 자원봉사자와의
인터뷰**



편집자의 주

장로들과의 대화와 인터뷰를 통해 나는 글쓰기가 이전에 완전히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강력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글쓰기 워크숍이 어떻게 집에서 나와 고립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글쓰기는 단지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공동의 활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도전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은 그들이 치유되고 목적의식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쓰기는 세대 간 격차를 넘어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저는 다르지만 똑같이 의미 있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이 항상 육체적인 보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미소, 소소한 기쁨의 순간은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순간을 만드는 데 내가 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감정적이고 무형적인 보상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글을 쓰겠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나는 내 글을 치유와 연결을 위한 도구로 여기게 되었고, 그것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한 번에 하나의 이야기로 모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눔활동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이승희 후원자님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A. 안녕하세요.저는 ‘달보드레’ 라는 디저트 카페 &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희라고 합니다. 약 10년 전부터 엔젤브래드라는 제과제빵 봉사단으로 활동하며 지역내 다양한 곳에서 정기적인 디저트 후원 및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떡케이크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A. 처음에는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생일케이크 배달 자원봉사자로 방문했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기존 케이크 후원 업체에 사정이 생겨 새로운 후원처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 하는 일이 제과제빵이기 때문에 제가 복지관에 케이크를 후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배달 자원봉사활동과 케이크 후원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Q. 후원을 망설이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A.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망설이는 이유가 본인의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야 하는 어려운 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포항 내 다양한 기관에서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을 해본 결과 사실 나눔 활동은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본인이 시간이 날 때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저는 제과제빵을 좋아하니 디저트 후원이, 교육적인 지식이 많으신 분은 학습지원이나 멘토링 활동이 가장 쉬운 나눔 활동이 될 수 있겠죠.

Q. 활동을 수행하며 직접 체감하는 후원, 나눔이란 어떤 의미일지 궁금합니다.

A. 거창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제 마음을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배달하러 갔을 때 제 손을 잡으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보람을 많이 느끼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항상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A.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제과제빵으로 타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지금 이 일을 계속할 예정이고 가능하다면 오래 하고 싶습니다.



우울한 마음도 함께 하면 밝아져요!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는 포항시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마음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개별사례관리 및 집단활동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우울감 감소와 사회관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정한 모습으로 특별한 인상을 남겨 주신 특화서비스 이용자 김금자, 최순자 어르신 두분께 한 해 동안의 소회를 들어보았습니다.

Q.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시게 되었습니까?

A. 김금자: 혼자 생활하며 일상이 무료하고 생기없이 지낸다고 걱정하던 담당 생활지원사가 우울 증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특화서비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혼자서는 할 자신이 없어 친한 이웃 동생인 순자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최순자: 저 또한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고 항상 활기가 없는 무료한 일상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언니의 권유로 특화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일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처음 접하는 것이어서 걱정이 앞섰지만 용기내보았습니다.

Q. 특화서비스 이용 후 어르신의 마음과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 김금자: 집에만 있으면 하염없이 기분이 가라앉았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있는 날만 기다려요. 그날에는 신경 써서 옷도 챙겨 입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원예활동을 하며 만든 화분들을 키우며 매일 아침 살펴보고 있어 우울한 마음 대신 즐거운 마음이 드는 시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순자: 특화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후 한 가지 병을 고친 것 같아요. 집안일에 짜증만 났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운 마음이 듭니다. 정기적인 외출로 나만의 시간이 생긴 것 같아 좋고 깔끔하게 나가려고 외모관리에도 신경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날짜를 메모하고 기억하려는 습관이 생겨 깜빡깜빡하던 것도 좋아졌어요.

Q. 특화서비스 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A. 김금자: 체리 농장 갔던 게 참 좋았어요.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체리 열매를 찾아서 따고 맛보았던 게 마음에 들었고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곳이 기억에 남아 프로그램 후에도 둘이 버스를 타고 다시 찾아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라면 잘 참여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순자가 있어서 꾸준히 나오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은 거 같아요.

최순자: 저도 체리농장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맛있는 체리가 달린 나무를 찾아 농장을 구석구석 다니니 땀까지 나더라구요. 그리고 서로 챙겨주고 대화하며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좋은데 언니가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함께 밝아지는 것 같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모든 날이 기억이 남아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김금자: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고 걱정도 했지만 막상 참여해보니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밝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위에서 모두 부러워할 정도이고 참여할 때마다 매번 선생님들의 정성이 느껴져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최순자: 특화서비스를 통해 올해 참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마음까지 편안해졌습니다. 드러난 병이 아닌 마음의 병이라 알아차리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밝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응원 해줍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특화서비스에 참여하며 즐겁게 지내고 싶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주문하신 에스프레소 나왔습니다~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은 취직을 희망하는 성인 발달 장애인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전문성 습득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훈련에 참여한 직업훈련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훈련생 박소영입니다.

Q.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 저는 바리스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바리스타 훈련을 받게 되면서 다양하고 맛있는 커피를 직접 만들고 손님들에게 드리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손님들이 커피가 맛있다고 해주면 하루종일 손님의 말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스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 바리스타 자격증 훈련을 받으면서 힘들었던 점과 흥미로웠던 점을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A. 어려웠던 점은 우유로 거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우유가 담긴 컵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작동 버튼을 빠르게 돌리고 감는 것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금방 거품을 잘 만들어 내는데 저는 뜨거운 것이 겁이 났고 우유가 돌아가기만 할 뿐 거품은 나지 않아서 속상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품을 아주 잘 만들어 냅니다. 커피를 만드는 것이 어려웠지만 바리스타 훈련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은 제가 직접 만든 커피를 마셔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맛이 없던 커피에서 맛있는 커피로 변하는 저만의 커피가 좋았습니다.

Q. 예비 바리스타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손님들에게 행복을 드리고 싶은 바리스타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솔직히 바리스타 자격증을 얻지 못하면 속상하겠지만 다시 도전해서 자격증을 가질 것이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 웃는 표정 유지해보기처럼요.

Q. 마지막으로 소영씨에게 바리스타는 어떤 직업인가요?

A. 바리스타라는 직업은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함과 시원함을 주는 좋은 기분을 전달 해주는 바리스타가 될 것입니다.

다정한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권태경 (만 74세) 포항시니어클럽에서 사회서비스형 길라잡이 참여자로 현재 '유진어린이집'에서 한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Q.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2011년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 후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무렵 손자가 태어나 어린이 언어와 감정 표현이 새로운 관심이었습니니다. 나는 귀여운 손자를 대할 때 잘 놀아주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유아 세계의 특성이 궁금하고 감정을 쉽게 소통 방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포항 시니어클럽의 노인 일자리 길라잡이 사업을 알게 되었고, 제 직업적 경험과 손주를 위해 알아보았던 내용들을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길라잡이 활동을 계기로 유아 보육교사 자격증도 취득 하였습니다.

Q. 노인일자리사업에 언제부터 참여하고 계신가요?

A. 2012년 3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10여년에 이르렀습니다.

Q. 활동하시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5세부터 7세까지 한자 길라잡이 활동을 합니다.
월요일은 한자를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준비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한자를 익히는 학습 활동을 합니다.
하루 2~3글자 정도 학습하여 일년에 100자 정도 익힐 수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학습 도우미 활동과 학습자료 준비, 학습 결과물 정리, 환경 꾸미기, 놀이 및 행사 진행들을 돕습니다.

Q. 참여하시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 아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은 "왜 할아버지가 선생님이예요?", "한자 선생님이 뭐예요?", "왜 머리가 하예요?" 라며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호기심과 설렘으로 시작한 만남이 점점 익숙해지자 개구쟁이는 살금살금 다가와 가방도 열어보고 양말도 뒤집어보는 친밀감을 보이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 오늘 제 동생 생일이예요" 엉뚱한 자랑으로 말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학습활동 중에는 한자를 형상화 한 '한자 체조'를 만들어서 이것을 수업 종료 3분 정도 동작으로 실행합니다. 함께 서기 앉기 구르기 엎드리기등 여러 동작과 자세를 통해 30여 한자를 형상화 하거나 의미화하는 표현을 매우 즐겁게 실행합니다.

Q.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면서 느낀점이 있나요?

A. 퇴직 후 느슨해진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아이들을 만나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출근 할 때는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도움되는 학습이 되도록 노력하는 제 자신이 무척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동안 나 자신도 몸과 마음이 한결 가볍고 맑아지는 것 또한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Q. 나에게 노인일자리란?

A. 나의 능력을 보여줄수 있는 기회의 장이자 삶의 활력소입니다. 노인일자리는 초등학교 교사 재직 후 두 번째 직장으로 사회적 관계가 이어지고 나의 능력이 제공되는 좋은 기회의 장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도 지키고 경제적인 보탬도 되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활력소입니다.

오레시피 포항창포점

오레시피 포항창포점은 사회적협동조합 경북 포항지역자화센터의 기업 연계형 사업단으로 반찬 및 국을 조리하며 판매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밀반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Q. 오레시피 창포점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김 00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오레시피 창포점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로 근로하고 있는 김 00이라고 합니다. 오레시피에 근무하게 된 지는 4년정도 되었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당시 우연한 기회로 한식조리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후로 '요리'에 관심이 생겨 자연스럽게 밀반찬을 조리하며 판매하는 오레시피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자활근로사업단 (오레시피)에 근무하며,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A. 가게로 오시는 손님들 중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손님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 손님이 2주정도 오시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낙상으로 인하여 뼈가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하느라 2주 동안 가게에 방문하지 못하였다며,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계란말이가 입원기간 내내 먹고 싶었다며 찾아오셨던 선한 얼굴이 기억납니다. 사실 제 근무지에서 장애인복지관에 밀반찬 후원을 시작하고 난 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제가 주방에서 직접 조리하는 계란말이가 입원기간 내내 생각났다니 '앞으로 더 음식 조리를 열심히 해야지!' 라는 의지를 끌어 올려 주셨던 일이 기억납니다.

Q. 후원 밀반찬을 조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추억이나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을까요?

A. 후원 밀반찬 뿐만 아니라 늘 밀반찬을 조리하며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조리하는 반찬과 국이 소비자의 밥상에 올라갈 생각을 하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기에 항상 모든 조리 과정에 사랑과 정성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Q. 후원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A. '작은 나눔이 큰 위로를 전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후원을 한다는 다짐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과연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 들지만 일단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후원단체에세 후원의 나눔이란?

A. 저는 후원의 나눔이란? '사칙연산' 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은 빼주고 사랑은 더하고 힘듦을 나누고 뿌듯함은 곱하기가 되는 후원의 사칙연산을 여러분도 함께 실천해주기 바랍니다!

학산골의 안전지킴이: 학산골 안전자치 시민참여단



Q.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학산골 안전자치 시민참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김준덕입니다.

Q. 단장으로서 책임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A. 단장이라는 직책이 처음이라 조금 부담스럽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 복지관과 함께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Q. 학산골 안전자치 시민참여단은 어떠한 단체인가요?

A. 학산파출소,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학산관리소가 함께 힘을 모아, 우리 학산골 마을을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참여단입니다. 안전자치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처럼 학산골 마을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Q. 학산골 안전자치 시민참여단은 어떠한 활동을 하나요?

A. 학산골 마을을 비롯해 중앙동 인근의 각종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산파출소와 연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마을 주변 순찰활동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학산관리소와 함께 마을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 환경미화, 시설물 보완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시민참여단 활동을 하며 어려운 부분은 없으신가요?

A. 아직까지 주변에 안전자치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를 아시는 분들은 순찰, 환경 미화 활동을 할 때 따뜻한 말로 감사와 응원을 해주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경각심을 자긴 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직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참여단은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해 마을에 긍정적인 시선과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Q. 안전자치 시민참여단 활동을 하시며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A. 작년 12월 학산동 주변 철길숲을 순찰하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땀에 모셔 드리려고 하는데 집도 기억을 못하셔서 학산파출소의 도움은 받아 확인해보니 학산주공아파트에 사는 이웃주민이었습니다. 집에 모셔다 드리고 나서 며칠 후에 어르신이 “요새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아무도 신경 안쓰고 모른 척 하던데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소”라며 박카스 하나와 함께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정말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Q. 시민참여단 단장님으로써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A. 시민참여단의 지역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산골을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선 저 혼자만으로 부족합니다. 다른 주민분들에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나이가 많으시고 몸이 편찮으셔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데 하루라도 젊고 건강할 때 저와 함께 살기 좋은 학산골 마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움츠린 어깨를 피어 (Peer) 봐"

2023년 경북공동모금회신청사업으로 장애인 동료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움츠린 어깨를 피어 (Peer) 봐"는 지역사회 지지체계 마련을 위한 장애인 동료 상담 프로그램으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이웃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동료 상담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다양한 이론 교육과 내담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자 장애인 동료 상담가와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현재 복지관에서 장애인 동료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최영임입니다.

Q. 장애인 동료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A. 복지관 직원분의 안내로 장애인 동료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교류가 적은 장애인과 함께한다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공감한다는 자체가 큰 위로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Q. 장애인 동료 상담 프로그램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A. 교육을 통해 장애인 동료상담가들과의 대화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교류한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장애인 동료 상담 교육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상담 후, 처음 내담자를 만나러 가는 날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내담자분께서 먼저 전화가 오셔서 찾아오는 길을 걱정해 주시고,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보고 '라포 형성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동료 상담을 하며 내담자와 처음 만난 그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장애인 동료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조금 힘들었던 점이 있으실까요?

A. 처음 내담자와 이야기를 나눈 순간인 거 같습니다. 저와 내담자는 전화로 처음 인사를 나눴는데 사실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어떻게 말을 건널지, 다가가는게 부담스럽지는 않을지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육 때 배웠던 것처럼 처음부터 많은 질문을 하기보다는 천천히 다가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런 제 노력이 통했는지 내담자 분께서는 점차 본인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힘든 점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제가 상담가로서 성장했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Q. 장애인 동료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변화된 점이 있으실까요?

A. 사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있지만 배운 것들을 현장에서 적용해 볼 기회가 부족했고 늘 경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장애인 동료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서비스나 정책이 어떤 게 있을지 혼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동료 상담가로, 사회복지사로 조금 더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복지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A. 장애인 동료상담 프로그램이 올해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담자분들이 직접 복지관에 방문하는 일정이 있으면 정말 좋을 거 같습니다. 복지관을 직접 한번 방문해 보면 복지관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같이 방문해보는 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추억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포항시니어클럽에서 마미드림 참여자로 나무와아이들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박은혜 (만 65세) 입니다.

Q.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하루를 바쁘게 살면 1년은 길고, 하루를 더디게 살면 1년은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60대에 접어드니 집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무료하게 느껴지고 늘 갑갑함을 풀 곳이 없었습니다. 60대에도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노인일자리 기관인 포항시니어클럽을 알게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신청해 놓고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Q. 활동하시는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저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 놀이기구 등을 닦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걸음마 하는 아이들부터 한창 뛰어노는 아이들까지 모두 내 손자들이라 생각하니 어느 한곳도 허투루 청소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하고 뛰어와 안기는 봄벌처럼 따스한 아이들을 보면 기운이 저절로 난답니다.

Q. 참여하시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 한 아이가 제게 직접 그린 하트 그림을 선물로 주었어요. '할머니~'하고 꼬깃꼬깃 접은 종이를 내미는데 커다란 분홍 하트가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크레파스 잡고 열심히 그렸을걸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나요. 제 노력에 보람을 느낀 것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일자리 참여한 후로는 삶의 활력도 생기고 하루하루가 사랑으로 샘솟는 거 같아요.

Q.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서 느낀점이 있나요?

A. 매주 2~3회 어린이집으로 출근하면서 늦깎이 직장인이 된 것 처럼 소속감도 느낄 수 있어서 하루의 일상이 즐겁습니다. 젊은 선생님들과 대화 나누고 같은 참여자들과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주다 보니 제 마음이 뭔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다 보니 인생이 다채로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일상에서 별것 아닌 것에 웃으며 함께 지내다 보면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나에게 노인일자리란?

A. 노인일 자리를 참여하면 활력소와 경제력을 주며 행복한 삶을 위한 또 다른 시작입니다.